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'14.6.30(월) 조간으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	국내대책과	최호천 과장(044-203-4140)	조은교 사무관(044-203-4144)
	FTA이행과	윤창현 과장(044-203-5760)	김이경 사무관(044-203-5764)
	투자유치과	주소령 과장(044-203-4080)	위승복 사무관(044-203-4082)
농림축산식품부	농업정책과	서해동 과장(044-201-1711)	이강석 사무관(044-201-1721)
해양수산부	수산정책과	전재우 과장(044-200-5420)	김명호 사무관(044-200-5427)
관세청	FTA집행기획담당관실	제영광 과장(042-481-3201)	백형민 사무관(042-481-3202)
중소기업청	해외시장과	김대희 과장(042-481-4391)	안태용 사무관(042-481-3959)

한 · EU FTA 발효 3년차 교역 · 투자 동향

FTA 혜택품목 수출 증가 → 전체 수출 견인 및 투자 제고

□ **[교역규모] EU와의 교역량**이 3년차에 전년동기 대비 **10.3%**(수출 7.8%, 수입 12.5%) **증가**하여 **FTA**가 **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음**

* 對EU 교역량 증감률(%) : (1년차) △1.3 → (2년차) 1.5 → **(3년차) 0.3%**

○ 수출입 모두 같은 기간 **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율**(수출 3.[illegible]%, 수입 1.8%) 보다 **높은 수준**임

※ 3년차에도 유럽재정위기 여파, 유로화 약세, EU로의 수입선 전환 등으로 적자규모는 확대 (18 → △46 → △74억불, 첨부보고서 참고1 참조)

□ **[수출]** 발효 후 3년차에 FTA **혜택품목**의 **수출 증가**(17.1%)에 힘입어 EU 전체 **수출이 증가세(7.8%)로 전환**

* 對EU 수출 증감률(%) : (1년차) △12.2 → (2년차) △4.8 → **(3년차) 7.8%**

○ **FTA혜택품목**中 **합성수지, 플라스틱 제품, 조명기기** 등은 FTA 발효 이후 **3년 연속 수출이 증가**하였고,

- **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**, 타이어 등의 **고무제품** 등은 2년차에 수출이 감소하였으나, **3년차에 증가로 전환함**

※ 특히,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**은 3년차에 **증가세로 전환** (△5.6% → △10.2% → 14.1%)

○ FTA 비혜택품목(0.6%)의 경우 **선박 · 평판디스플레이** 등의 **수출은 감소**한 반면, **무선통신기기 · 석유제품 · 반도체** 등은 **증가하였음**

○ **EU 수입시장**에서도 **우리나라의 경쟁국**들의 **수출이 대부분 감소**하였음에도 **우리나라 수출은 증가함**(4.9%)

< EU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 변화율 (자료 : Eurostat, '13.7~'14.3월) >

對세계	한국	일본	중국	미국	러시아	대만
△0.6%	4.9%	△8.0%	△0.2%	△1.7%	△6.5%	7.1%

□ **[수입]** 3년차 **FTA혜택품목 수입이 14.5%**, 비혜택품목이 6.8% 증가하여 **전체 수입은 12.5% 증가**하였음

○ **혜택품목인** 자동차, 원동기 · 펌프, 기계요소 등이 **3년 연속 증가**하였음

- FTA 발효이후 중동에서 수입선을 전환한 **북해산 원유**의 수입이 크 폭으로 증가하였으나, **3년차에는 감소함**(순증→72.8→△10.4%)

○ **비혜택 품목**의 경우에는 **반도체 제조장비, 항공기 및 부품** 등은 **수입**이 **증가**한 반면, **반도체** 등의 **수입**은 **감소함**

□ **[활용률]** FTA발효시부터 실시된 **인증수출자 지정제 정착**으로 수출 활용률은 他FTA보다 높은 편이나, 3년차 활용률(83.1%)은 소폭 감소하였음

○ 3년차에도 대기업의 수출 활용률(91.2%)이 중소·중견기업(73.1%)보다 여전히 높지만, 지난 3년간 **중소·중견기업 활용률**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 중

□ **[투자]** FTA발효 이후 3년차 EU의 對韓 FDI(신고기준)는 55.6억불로 발효 전(38.4억불)뿐만 아니라 2년차(38.0억불)에 비해 크게 증가

○ 유럽의 한국투자 추세는 FTA 효과보다는 **금융위기, 재정위기**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**다소 변동**하는 경향을 보임

○ 제조업은 화공, 비금속광물분야를 중심으로, M&A형은 비금속광물, 금융 · 보험 업종 위주로 투자가 늘어났음

◆ **[참고] 한·EU FTA 3년차 농수산물 교역현황**

○ **[교역]** 농축수산물의 **對EU 교역량**(3,891백만불)은 수입선 전환 등의 효과로 2년차(3,329백만불)에 비해 **증가**(16.8%)하였으며, 발효 전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

○ **[수출]** 3년차 對EU 농축수산물 수출(404백만불)은 2년차에 비해 2.5% 수준으로 증가했으나, 전체 對EU 수출증가율(7.8%)보다는 낮음

- 김, 미역, 오징어 등의 **수산물 수출**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 (95→106백만불, 10.5%) 함에 따라 3년차 농축수산물 수출증가에 기여

- 농산물 중 과일류(4.9→8.8백만불) 및 채소류(14→16백만불) 등의 수출도 증가함

○ **[수입]** 3년차 對EU 수입은 **가공식품**, **축산물**, **수산물**을 중심으로 2년차에 비해 증가함 (2,935 → 3,487백만불, 18.8%)

-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입액中 **EU産 비중**은 발효 전 대비 2.2%p **증가**한 반면, **미국産 비중**은 작황부진 등으로 4.6%p **감소**

□ **[향후계획]**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**주기적으로 점검**하고 **지원정책을 내실화**하겠음

○ 업종별로 특화된 **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·지원**하고, 개별기업의 FTA 활용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애로해소 방안을 추진하겠음

○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 FTA허브 효과를 활용한 **투자유치의 IR을 적극 추진**하겠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조은교 사무관(☎ 044-203-41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
첨 부

한·EU FTA 발효 3년차 교역·투자 동향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2014. 6. 30

관 계 부 처 합 동

차 례

Ⅰ. 한 · EU FTA의 의의 1

Ⅱ. 한 · EU FTA의 분야별 성과 2

Ⅲ. 향후 계획 7

Ⅰ. 한 · EU FTA의 의의

□ EU는 **전세계 GDP의 23.1%**(16.7조불, '13년 IMF자료 기준)를 차지하고 있는 **세계 최대시장**이자, 우리나라의 **3위 교역상대국**

○ EU는 우리나라의 **3위** 수출상대국이자 **3위** 수입상대국

* '13년 주요 수출대상국 : 중국(26.1%), 미국(11.1%), EU(8.7%)
'13년 주요 수입대상국 : 중국(16.1%). 일본(11.6%), EU(10.1%)

□ **3년차 적용 특혜관세 혜택 현황**

○ 한·EU FTA에서 3년 관세철폐 수준은 **한국이 87.2%, EU가 96.9% 수준**임(품목수 기준)

- 한국양허(한국 수입시) : **즉시** 철폐 81.7%, **3년** 관세철폐* 5.5%
- EU양허(한국 수출시) : **즉시** 철폐 94.0%, **3년** 관세철폐 2.9%

* 3년 관세철폐 : 기준관세를 발효일로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4년차('14.7.1)부터 완전 철폐

(단위:관세율,%)

	한국측 양허	EU측 양허
즉시철폐	**[공산품]** 자동차부품(8), 계측기(8), 직물제의류(13), 인쇄기계(8),선박(8), 냉장고(8), 광학기계(8), 타이어(8), 컴퓨터 부품(8), 칼라TV(8) **[농수산물]** 홍차(40), 포도주(15), 아몬드(8), 올리브(8), 코코아조제품(8)	**[공산품]** 자동차부품(4.5), 무선통신기기부품(2~5), 스웨터(12),에어컨(2.7), 냉장고(1.9~2.5),남성셔츠(12), 진공청소기(1.7~2.2), 연축전지(3.7) **[농수산물]** 돼지고기, 닭고기, 인조꿀**, 간장(8), 맥주(30)
3년철폐	**[공산품]** 1500cc초과 승용차(8), 펌프(8), 안경(8), 의약품(8), 화장품(8), 선박엔진·부품(8), 식품 가공기계(8) **[농수산물]** 레몬(30), 자두(45), 아보카도(30), 오렌지쥬스(54), 밀가루(4.2)	**[공산품]** 1500cc초과 승용차(10), 복사기(6), 타이어(2.5~4.5), 합성수지(6.5), 항공기(7.5~7.7), 자전거(15) **[농수산물]** 샐러리(12.8), 완두콩(8) 가리비(8)

* ( )내는 해당 항목內 대표품목의 기준관세이며, 실행관세와는 다를 수 있음
품목별 hs code 및 관세율은 www.fta.go.kr 에서 확인 가능

** EU 기준관세는 100kg당 돼지고기 46.7~86.9€, 닭고기 26.2~100.8€, 인조꿀 0.4€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Ⅱ. 한 · EU FTA의 분야별 성과

□ **[교역규모] EU와의 교역**이 3년차에 전년동기 대비 **10.3%**(수출 7.8%, 수입 12.5%) **증가**하여 **FTA**가 **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**

* 對EU 교역량 증감률(%) : (1년차) △1.3 → (2년차) 1.5 → **(3년차) 10.3%**

○ 3년차 수출입 증가율은 **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율**(수출 3.2%, 수입 1.8%) 보다 **높은 수준**

(단위: 억불)

	'12.7-'13.6(발효 2년차)		'12.7-'13.5	'13.7-'14.5(발효 3년차)	
	금액	전년대비 증감	금액(A)	금액(B)	B/A
수 출	484	△4.8%	438	473	7.8%
수 입	530	8.0%	487	547	12.5%
교 역	1,014	1.5%	925	1,020	10.3%

※ 3년차에도 유럽재정위기 여파, 유로화 약세, EU로의 수입선 전환 등으로 적자규모는 확대 (18 → △46 → △74억불, 참조1 참고)

□ **[수출]** 발효 후 3년차에 FTA **혜택품목**의 **수출 증가**('7 .1%)에 힘입어 EU 전체 **수출이 증가세(7.8%)로 전환**

* 對EU 수출 증감률(%) : (1년차) △12.2 → (2년차) △4.8 → **(3년차) 7.8%**

○ 품목별 수출의 경우 **주요 FTA혜택품목 대부분이 증가**

- **합성수지, 플라스틱 제품, 조명기기** 등은 FTA 발효이후 **3년 연속 수출이 증가***하였고,

  * 1년차→2년차→3년차 증감율(%) : **합성수지** 21→27.2→19.3, **플라스틱 제품** 14.6→1.2→7.7, **조명기기** 46.5→37.7→6.1

- **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**, 타이어 등의 **고무제품** 등은 2년차에 수출이 감소하였으나, **3년차에 증가로 전환***

  * 1년차→2년차→3년차 증감율(%) : **자동차** 29.2→△0.6→7.3, **자동차부품** 14.2→△13.3→16.9, **원동기 및 펌프** 50→△8.9→25.5, **고무제품** 12.7→△15.1→19.7

※ 특히,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**이 3년차에 증가세로 전환 (△5.6% → △10.2% → 14.1%)

○ FTA 비혜택품목(0.6%증가)의 경우 **선박 · 평판디스플레이** 등의 **수출은 감소**한 반면, **무선통신기기 · 석유제품 · 반도체** 등은 **증가**

- 특히, **선박**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**3년 연속 수출이 감소**(△46→△19→△8.2%)하여 FTA 발효 전 대비 **약 100억불 수출 축소**(155.8→49.7억불)

- 반면, **무선통신기기**는 발효 2년차에 이어 발효 3년차에도 **수출 증가**(42.5 → 12.8%)

○ **EU 수입시장**에서도 **우리나라의 경쟁국**들의 **수출이 대부분 감소**하였음에도 **우리나라 수출은 증가**(4.9%)

< EU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 변화율 (자료 : Eurostat, '13.7~'14.3월) >

對세계	한국	일본	중국	미국	러시아	대만
△0.6%	4.9%	△8.0%	△0.2%	△1.7%	△6.5%	7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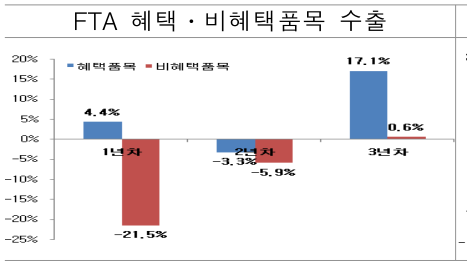
□ **[수입] 3년차 FTA혜택품목의 수입이 14.5%**, 비혜택품목이 6.8% 증가하여 **전체 수입은 12.5%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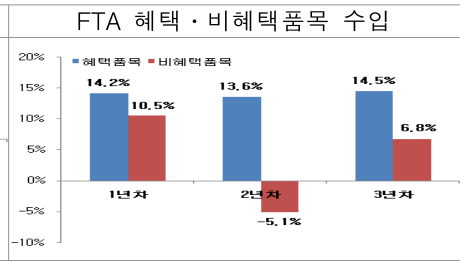
○ **혜택품목인** 자동차, 원동기 · 펌프, 기계요소 등이 **3년 연속 증가**하였고,

- FTA 발효 후 중동에서 수입선을 전환한 **북해산 원유**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, **3년차에는 감소**(순증→72.8→△10.4%)

○ **비혜택 품목**의 경우에는 **반도체 제조장비, 항공기 및 부품** 등은 **수입이 증가**한 반면, **반도체** 등의 **수입은 감소**

* 1년차→2년차→3년차 증감율(%): **반도체 제조용 장비** △0.5→△55.9→136.1, **반도체** △9.7→26.5→△11.5





[참고1] 對EU 무역수지 악화 원인 분석

① **(유럽 재정위기)** 장기화된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EU 전역에 걸쳐 **경기침체가 지속**되면서 **실업률이 상승**하고 **소비심리가 위축**

* **(실업률)** 한-EU FTA 발효후인 '12.1월 이후 EU 전체 실업률은 10%를 상회('14.4월 10.4%)

* **(소비자신뢰지수[1])**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 (출처: Eurostat)

구분	'11.7월	'12.1월	'12.7월	'13.1월	'13.7월	'14.1월	'14.5월
EU 전체 소비자신뢰지수	△12.5	△20.5	△20.0	△21.8	△14.7	△8.8	△4.1

* **(수입규모)** EU 수입 수요가 위축되어 '13년 대내외 수입규모가 모두 감소
  - EU 역외 수입액 : ('12년) 1조 7,980억 유로 → ('13년) 1조 6,820억 유로(△6.4%)
  - EU 역내 수입액 : ('12년) 2조 7,550억 유로 → ('13년) 2조 7,470억 유로(△0.3%)

② **(유로화 약세)** '1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**원/유로 환율의 하락세**로 對EU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

* 한-EU FTA 발효이후 원/유로 환율은 **7.2% 하락**하였으며, 이후 약세기조 유지

③ **(무역전환효과) 기계·원유·석유제품**을 기존 일본 등에서 EU로부터 수입으로 전환하여 **수입선을 다변화**

* **(원유)** 對이란 국제사회 제재('11.11)로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국産 브렌트油로 전환
* **(석유제품)** 나프타 수입이 인도(관세 5%)에서 EU(관세 0%)로 전환
* **(기계요소)** 한-EU FTA 관세혜택으로 인해 일본에서 EU로 수입선 전환

<'09~13년 한국의 원유·석유제품·기계요소 수입현황> (단위 : 억불, 출처: 무역협회)



(원유)



(석유제품)



(기계요소)

1) 소비자신뢰지수(Consumer Confidence Indicator) :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경제동향 파악과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현재 및 장래 재정상태, 물가, 구매조건 등을 설문조사하고 지수화 한 것으로 기준치인 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인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

□ **[활용률]** FTA 발효시부터 실시된 **인증수출자 지정제*** 정착으로 수출 활용률이 타 FTA** 보다 높은 편이나, 3년차 활용률(83.1%)은 소폭 감소

* 수출기업이 한·EU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통관절차 간소화 효과가 있음

** FTA별 활용률 비교 : EU(83.1%), 미국(74.9%), 터키(74.3%), 인도(54.6%), 아세안(40.3%)

○ 3년차에도 대기업의 수출 활용률이 중소·중견기업보다 여전히 높지만, 지난 3년간 **중소·중견기업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 중**

※ FTA 수출활용률 =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 ÷ FTA 혜택품목의 수출금액

< 우리나라 기업의 한·EU FTA 수출 활용률 (자료: 관세청) >

구분	발효 후1년 ('11.7~'12.6)	발효 후2년 ('12.7~'13.6)	발효 후3년 ('13.7~'14.5.31)
전체	80.6%	85.2%	83.1%
대기업	89.6%	93.5%	91.2%
중소·중견기업	69.6%	73.6%	73.1%

□ **[투자]** FTA발효 이후 3년차 EU의 對韓 FDI(신고기준)는 55.6억불로 발효 전(38.4억불)뿐만 아니라 2년차(38.0억불)에 비해 크게 증가

○ 유럽의 한국투자 추세는 FTA 효과보다는 **금융위기, 재정위기**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**다소 변동**하는 경향을 보임

○ 제조업은 화공, 비금속광물분야를 중심으로, M&A형은 비금속광물, 금융·보험 업종 위주로 투자가 활발

< 한-EU 발효 전·후의 對韓 투자 현황(1년단위)>

(단위: 백만불, 신고기준)

구분		발효 전1년 ('10.7 ~'11.6)	발효 후1년 ('11.7~'12.6)	발효 후2년 ('12.7~'13.6)	발효 후3년 ('13.7~'14.6.24)
합 계		3,835	4,384	3,800	5,562
산업별	제조업	1,536	2,081	810	3,287
	서비스업	1,837	2,294	2,989	2,222
유형별	M&A형	758	974	2,621	3,503
	그린필드형	3,076	3,409	1,179	2,059

[참고2] 한·EU FTA 3년차 농수산물 교역현황

○ **[교역]** 농수산물의 **對EU 교역량**(3,891백만불)은 수입선 전환 등의 효과로 2년차(3,329백만불)에 비해 **증가**(16.8%)

- 교역규모는 발효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 (발효전 3,011→3년차 3,891백만불)

○ **[수출]** 3년차 對EU 농수산물 수출(404백만불) 2년차에 비해 2.5% 수준으로 증가했으나, 전체 對EU 수출증가율(7.8%)보다는 하회

- 수산물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(95→106백만불, 10.5%)함에 따라 3년차 농축수산물 수출증가에 기여

  * 김, 미역 등 해조류(6.6→9.4백만불), 오징어, 문어 등의 연체류(5.3→8.8백만불) 수산물이 크게 증가

- **농수산물** 중 **과일류**(4.9→8.8백만불) 및 **채소류**(14→16백만불) 등 수출 증가

  * 가공식품은 소폭 감소했으나, 라면·젤라틴 등의 일부 **가공식품**과 **타르트, 버섯, 김치** 등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

○ **[수입] 3년차 對EU 수입**은 **가공식품, 축산물, 수산물**을 중심으로 2년차에 비해 증가 (2,935 → 3,487백만불, 18.8%)

- 지난 3년간 농축수산물 수입은 발효 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(발효전 2,639백만불 → 3년차 3,487, 32.1%)

- 우리나라 농수산물 총수입액 中 **EU産 비중**은 발효 전 대비 2.2%p **증가**한 반면, **미국産 비중**은 작황부진 등으로 4.6%p **감소**

  * EU産 비중 : (발효전) 8.9% → (3년차) 11.1%
    미국産 비중 : (발효전) 26.4% → (3년차) 21.8%

  * 2년차 대비 수입증가 주요품목 : 돼지고기, 밀, 유장, 포도주, 초코렛, 맥주, 패류, 소금

Ⅲ. 향후 계획

◇ '14년 한·EU FTA를 포함한 對FTA발효국 교역·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**FTA 성과를 지속점검하고 지원정책을 내실화**

□ **[기업의 FTA 활용]** 「중소기업 **FTA 활용촉진 종합대책**」('13.6월)의 **2단계 대책**인 「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」('14.5월)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

① **(업종별 맞춤형 지원)**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업종별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,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

* 업종별 FTA 교육 운영(6~12월),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(11월) 등

② **(기업 FTA 활용 단계별 지원)** 초보→준비→실행 단계별 기업이 겪는 애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

- (초보) 품목분류 지원,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제도 확대(8→16개 지역센터, 下반기), FTA활용우수사례 경진대회(10월) 동반성장 사례대회 개최(11월) 등
- (준비) 컨설팅 확대('14년: 4,000개사 이상)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('14년 22,000개 社 이상), 특성화고 FTA 활용 교육 운영(하반기) 등
- (실행) FTA 선도기업(KOTRA) 확대('14년 80개사), 검증 요구자료 가이드 배포(6월)

③ **(정책홍보)** FTA 활용정책 홍보강화를 통해 기업이용 활성화

*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 배포, FTA 활용지원 세부 과제 홍보(下반기) 등

④ **(FTA 활용성과 점검 및 기업애로 발굴·해소)** FTA 활용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(반기1회)하고 FTA 기업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·해소

□ **[투자유치 활성화]** 對 FTA 발효국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, **FTA 허브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IR을 적극 추진**

○ **對FTA 발효국에 대한 투자유치 IR** 뿐만 아니라 허브효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**주변국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IR 추진**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참고3 對EU 수출입 동향

□ FTA 혜택·非혜택품목군 수출입현황

(단위 : 억불, 전년동기증감)

구 분		'12.7-'13.6(발효 2년차)		'12.7-13.5	'13.7-'14.5(발효 3년차)	
		금액	전년대비증감	금액(A)	금액(B)	B/A
수출	혜 택 품 목	210	△3.3%	192	225	17.1%
	비혜택품목	274	△5.9%	247	248	0.6%
	합 계	484	△4.8%	438	473	7.8%
수입	혜 택 품 목	391	13.6%	359	412	14.5%
	비혜택품목	140	△5.1%	127	136	6.8%
	합 계	530	8.0%	487	547	12.5%
교역	혜 택 품 목	601	7.1%	551	636	[illegible]
	비혜택품목	414	△5.6%	374	384	[illegible]
	합 계	1,014	1.5%	925	1,020	[illegible]

자료: 관세청

□ 농축수산물 분야별 대EU 수출입 동향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분	발효2년차 ('12.7-'13.6) (A)		발효3년차 ('13.7-'14.6) (B)		전년대비 증감율 (B/A)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▪ 농산물	274	1,619	277	1,887	1.1	16.6
-가공식품	255	1,243	251	1,322	-1.6	6.4
-곡물	1	289	1	478	0.0	65.4
-과일·채소	19	87	25	87	31.6	0.0
▪ 임산물	12	353	9	438	-25.0	24.1
▪ 축산물	13	871	13	1,053	0.0	20.9
▪ 수산물	95	92	105	109	10.5	18.5
◆ 합계	394	2,935	404	3,487	2.5	18.8

자료: 농식품부, 해양수산부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